



주님 공현 대축일

하느님,
오늘, 별의 인도로 성자를 이민족들에게 드러내 보이셨으니
믿음으로 하느님을 알게 된 저희도 자비로이 이끄시어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을 직접 뵈옵게 하소서.

[공동체 소식]

☐ 오늘은 ‘주님 공현 대축일’입니다.

- 내용 : 동방에서 별을 보고 먼 길을 찾아온 박사들의 모습 속에서 하느님의 구원이 유다 민족을 넘어 온 인류에 펼쳐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인류가 겪고 있는 전쟁과 폭력, 살인과 죽음, 죄악과 고통의 현실에서도 여전히 인류를 구원할 참된 빛이신 그리스도의 탄생을 갈망하던 동방의 박사들은, 하늘의 별이 안내해 주는 표징을 따라 “일어나 비추어라. 너의 빛이 왔다.”는 이사야 예언자의 말씀을 유다인들보다 먼저 들었고, 마침내 아기 예수님을 만나 경배하며 예물을 바치는 영광을 얻습니다.

- 전례시기 안내 : 내일 ‘주님 세례 축일’로 ‘성탄시기’가 끝나고, 화요일부터 ‘연중시기’가 시작 됩니다..

☐ 이번 주간 축일

- 01/08(월): 주님 세례 축일

☐ 2018년 1월달 로렌스, 맨하탄 공동체 미사는 없습니다.

☐ 이민자들의 날 미사 안내 (※이날 본당미사는 없습니다.)

- 일시: 2018/1/14(주일) 정오 12:00, 다과회 오후1:00-2:00.

- 장소: Cure of Ars Catholic Church,
9401 Mission Rd, Leawood, KS 66206.

☐ 본당 평신도사도직 협의회 신년 1월 정기회의

- 일시: 다음 주 교중미사 후.

- 장소: 나자렛 교육관.

☐ 교무금 완납 및 책정에 대한 안내

- 내용: 교무금은 신앙인이라면 마땅히 부담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성경에 “여러분이 되질하는 바로 그 되로 그 대들도 받을 것입니다.”(마태7,2)라고 되어 있듯이, 하느님께서 베풀어주시는 은총은 조금의 오차도 없습니다.

☐ 지난 한 해 동안 ‘본당 운영’을 위하여 애써주신,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 회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물질로, 시간으로, 정성으로 희생하시는 ‘평협위원님들’을 위하여, 앞으로 계속 기도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지원하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 전례 성가

	시 작	예 물	성 체	파 견
금 주 (1/7)	497	512	174	100
차 주 (1/21)	37	217	178	437

☐ 전례 봉사자 및 복사

	해설자	제1독서	시종 복사
		제2독서	향 복사
금 주 (1/7)	김대연 요셉	전용진 로렌스	김정원 안젤라
		조진환 베드로	-
차 주 (1/21)	박대주 로마노	김병철 베네딕도	차민서 임마누엘
		김경희스콜라스티카	이원준 요한

☐ 애찬 봉사자

금 주	김말자, 김화년, 안현숙
1월14일	이민자의 날 미사
1월21일	김경희, 김인자, 안혜진

☐ 헌금 봉사자

금 주	강영진 라파엘, 강승석 도미니코
1월21일	김대연 요셉, 전용진 로렌스

☐ 우리들의 정성

	영성체	헌금	교무금
12/31주일	58 명	342 달러	2,180달러
1/1/2018	45 명	259 달러	-
차호섭, 김수연, 정석원, 탁지완, 김대연, 이내익 (총 6세대)			

주님 공현 대축일

+미사시간
주 일:11:00 AM
화요일: 7:30 PM
수요일: 7:30 PM
목요일:10:00 AM(교육관)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보이는 것은 잠시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2코린 4,18-

천주교 캔사스 한인성당

Korean Catholic Church in Kansas City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ckcatholic.org
나자렛 교육관: 8901 Haskins St. Lenexa, KS 66215

2018년 1월 7일

주임신부:홍 진 베드로
M: 913.912.2574
hongjhin@daum.net

회 장:이우석 프란치스코
M: 816.616.0033

재 무:김병철 베네딕도
M: 913.710.0770

오늘의 전례



그분의 별을 품읍시다

무수히 빛나는 별 가운데 그분의 별을 찾은 동방박사들의 믿음과 혜안을 봅니다. 그 먼 여행길에서도 자신의 소중한 것을 기쁘게 바치는 사랑의 행보가 뜨겁습니다. 이천 년 전 주님의 탄생이 지금 내 마음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나요. 하늘을 우러러 그분의 별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림 김정미연 소화대예사

주님 공현 대축일

오늘은 주님 공현 대축일입니다. 인류의 빛이신 주님께서 모든 민족들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이신 날입니다. 주님의 별을 보고 예물을 가지고 경배하러 온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도 주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며 사랑의 실천으로 주님께 맞갖은 예물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제 1 독 서 :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60,1-6

화 답 송 :



◎ **주님,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경배하리이다.**

- 하느님, 당신의 공정을 임금에게, 당신의 정의를 임금의 아들에게 베푸소서. 그가 당신 백성을 정의로, 가련한 이들을 공정으로 다스리게 하소서. ◎
- 저 달이 다할 그때까지, 정의와 큰 평화가 그의 시대에 꽃피게 하소서. 그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땅끝까지 다스리게 하소서. ◎
- 타르시스와 섬나라 임금들이 예물을 가져오고, 세바와 스바의 임금들이 조공을 바치게 하소서. 모든 임금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모든 민족들이 그를 섬기게 하소서. ◎
- 그는 하소연하는 불쌍한 이를, 도와줄 사람 없는 가련한 이를 구원하나이다. 약한 이, 불쌍한 이에게 동정을 베풀고, 불쌍한 이들의 목숨을 살려 주나이다. ◎

제 2 독 서 : 사도 바오로의 에페소서 말씀입니다. 3,2,3ㄴ,5-6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우리는 동방에서 주님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

복음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1-12

☦ 생명의 말씀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오늘 복음의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구세주의 탄생을 알아내고, 자신들의 목표를 찾으려고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예루살렘까지 와서 구세주를 찾았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공경하게 될 것이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아울러 모든 이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구원을 찾는 우리 모두가 찾아야 하는 분입니다

오늘은 주님 공현 대축일입니다. ‘주님 공현’이라는 말은 주님께서 당신 자신을 공적으로 세상에 나타내 보이셨다는 뜻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아기 예수님은 포대에 싸여 말구유에 누워 계셨습니다.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의 모습이 라기보다 한없이 약하고 작은 모습입니다. 바로 여기에 구원의 보편성과 개방성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구세주가 오심은 특히 가난하고 불쌍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도 그 옛날 동방박사들처럼 아기 예수님을 정말 열심히 찾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어렵게 찾은 동방박사들은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황금은 임금께만 바치는 보물이었습니다. 따라서 아기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알아보았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유향은 사제들이 제사 때 분향하는 일종의 향료로, 기도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몰약은 시체에 바르는 방부제의 일종으로, 슬픔과 고난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 고난과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실 분임을 알아보았다는 위대한 예언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에게 아기 예수님은 구경거리나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을 구원하실 분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위험한 여행을 무릅쓰고 아기 예수님을 찾아 나섰고 그분께 참된예배와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구세주의 탄생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최대의 정성으로 예물

을 봉헌함으로써 자신들의 마음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차례입니다. 우리도 아기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는 약하고 가난한 이웃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도 그들에게 사랑과 나눔의 예물을 바쳐야 하겠습니까.

복은 혼자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은 서로 빌어 주는 것입니다. 행복과 희망은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최대한의 노력과 기원을 통해 얻어집니다.

주님 공현은 신성과 인성을 갖추신 구세주의 탄생을 모든 민족들에게 드러내 보이시는 신비입니다. 구원의 문은 열려있습니다. 오늘의 복음말씀을 묵상하면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려 험난한 길을 찾아온 동방박사의 마음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찾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에서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를 잘 알려줍니다.

☦ 교리산책

우주의 기원 ‘창조와진화’

‘천지 창조’라는 말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표현입니다. 신자가 아니더라도 유명한 그림이 금방 머릿속에 떠오르기도 할 겁니다. 성경의 맨 처음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세상창조 이야기는 흥미로운 내용들로 가득하지요.

성경에는 두 가지 창조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첫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날에 쉬셨다는 세상의 첫 일주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둘째이야기는 ‘에덴동산’이라는 제목이 붙여진 부분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두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 공통된 부분도 있지만 창조의 방법(말씀, 행위)이나 사람을 창조하신 순서 등이 다르게 기록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는 둘 중 하나가 잘못된 기록이라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다르게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요. 우리는 온 세상과 인간의 존재가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음을, 특별히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어떤 피조물보다 특별하게 창조하셨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마치 종교와 과학이 충돌하는 듯한 모습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창조론 vs 진화론’ 같은 제목의 많은 글을 인터넷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빅뱅 이론’이나 ‘암흑 에너지’ 같은 말들을 접해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과학자들은 우주가 처음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과정과 흐름, 진화를 거쳐 왔는지 여러 이론을 통해 설

명하고자 합니다. 아직까지 완벽한 이론이 등장하지는 않았지만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여러 발견과 정보들이 생겨나고 있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고백하면서도 과학적인 발견과 진화에 대한 내용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창조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것은 그것을 글자 그대로 믿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존재의 기원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창조된 세상은 그 자체로 질서 있고 조화로웠다는 것, 인간은 정말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신앙의 유무를 떠나서 우주와 자연, 생명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경이로움과 신비를 체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때문에 인간의 한계와 더불어 모든 존재의 시작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서는 그대로 멈춰있는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 있는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런 자연 속의 질서와 생명의 신비로움을 과학을 통해서 ‘발견’하고 있는 것이지요. 만물의 진화와 발전은 하나님의 지속적인 창조 활동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아름다움을, 생명의 소중함을 잘 지켜나가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사랑의 덕은 인간적 사랑의 능력을 하나님 사랑의 초자연적 완전함으로 들어 올려줍니다..

사목국 선교전례사목부

☦ 복음묵상

마음의 눈

마음은 눈이 없지요. 그래서 마음은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마음으로 본다고 합니다. 마음은 눈이 없는데 말이죠. 마음으로 볼 수 있다면 그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겠지요.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이의 마음일 겁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더없이 기뻐하였다.(마태 2,10)

